

## 언어사회학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김 하 수  
(연세대학교)

## Abstract

**Kim, Ha-soo.** 2010. **The Past and Future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8(2). Ever since the sociology of language has made its start, it has been continuously confronting with social issues in the field. Social issues such as fledgling nations, racial discrimination, gender equality, minority groups, language death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ad its significance more intimate as the matter of behavior and value of scholars who sees the scenes of life than simple lecture or research field. Also the sociology of language had been in charge of being ahead in the historical changing process such as liberation from suppression, uniformity to diversification, de-stratification, decolonization. Although there has not been many cases where the sociology of language took the lead or be active in the aforementioned incidents, but at least, their approach to the historical change with knowledge and sensibility should be highly evaluated. In the future, issues such as climate, the rights of minority, multicultural social condition, aging and market integration will be the significant topics of life, and in these issues, the sociology of language tasks will be presented. Though a critical mind related to the space one is living in, one's identity and interests will inevitably take the lead in the flow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above all, it seems that the issue of political, historical rights of language and the creation of new jobs related to language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Keywords:** sociology of language, sociolinguistics, future research topics,

- 
- 1) 정확한 발음은 /ləbÓv/이다. 제2음절에 강세가 온다. 한글로 가장 가까운 표기는 /러보 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화된 발음으로 /라보브/라고 표기한다.  
<http://wikipedia.org/sociolinguists>, 2010. 10. 10 검색

historical change, Korean sociolinguistics

## I. 들어가기

사실 ‘언어의 사회학’이라는 명칭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없지는 않으나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가 없지는 않다. 실제로 1960년대 사회언어학이 발생하던 초기부터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과 언어사회학(sociology of language)이라는 두 개념이 종종 공존 내지 병존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 혼용한 흔적도 보이고 있다<sup>1)</sup>. 또 요즘에 와서는 요즘에 와서는 이론 사회언어학과 응용 사회언어학으로 나누어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시 사회언어학과 거시 사회언어학으로 나누어 보려는 시각도 있다<sup>2)</sup>.

그러나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각 분류 방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역시 명료한 개념 분화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사실 사회언어학이 이론적이냐 아니면 응용적이냐 하는 물음은 매우 맹랑한 측면이 있다. 사실 사회언어학만큼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학문도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시각은 사회언어학이 비판을 받고 있는 형식언어학자들이 사회언어학을 ‘비이론적’인 응용언어학이라고 보면서 그들 스스로 지니고 있는 ‘비실천성’을 은폐할 때 더욱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만일 Labov(1966)의 뉴욕 백화점에서 조사한 ‘모음 뒤의 [r](postvocalic [r])’에 대해 연구하는 수행과정은 매우 미시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모델을 영국에서 연구한 Peter Trudgill(2003)의 성과를 아울러 가며 변이와 계층 문제를 다룬다면 이미 미시적 연구에서 거시적 연구로 단계가 달라졌음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주민 자녀들의 제이 언어 학습과정을 정밀하게 다루면 미시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층언어 혹은 이중언어적 현상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이것은 곧 거시적인 연구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 
- 1) 예를 들어 Joshua Fishman은 비슷한 내용의 저술을 1970년에는 Sociolinguistics로, 1972년에는 Sociology of language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또 그의 초기 저작인 Fishman(1968)에서도 Sociology of language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시적인 상호행위(Interaction) 문제를 다루고 있다.
  - 2)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인 것이 Ralph Fasold의 Sociolinguistics of Society와 Sociolinguistics of Language이다. 또 Swann(2004)와 Trudgill(2003)과 같은 사회언어학 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미시적 연구는 거시적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게 해 주면서, 또한 거시적인 연구는 미시적 현상을 배태하는 사회 구조의 의미와 그 역사적 방향을 탐지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러한 불투명한 개념의 경계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는 문제는 사회언어학이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오로지 ‘언어와 사회’라는 영역에 방어적으로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언어학의 형성 초기에 지난날의 인류학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발전 과정에서 심리학의 영향을 아니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교육학과의 관계도 매우 깊어졌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와 관련된 ‘현장의 사회 문제’와 사회언어학적인 관심의 연결고리도 매우 강한 결속력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예를 들어 흑인 영어를 연구하면서 인종차별 문제에 냉담할 수 있을까? 언어혼합을 논하면서 그들의 식민지 유산이 남긴 고통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언어변이의 계층적 분포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관심 밖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양층언어의 문제와 소수언어의 비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가?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면서 어찌 이주 여성들의 분노와 이주 노동자들의 절망에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회언어학은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된 영토 안에서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사회언어학의 영역 안으로 던져 주는 과제 역시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언어학을 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언어학만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언어가 담당할 그 크나큰 몫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자들은 끊임없이 교육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을 그의 영역 경계선 근처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과제와 우리의 과제를 공유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언어학은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등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언어학의 그 짧은 역사는 인간의 삶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본다.

결국은 이 글에서 논의할 언어의 사회학은 이미 박영순(2001)에서 시도된 바처럼 언어 정책과 계획, 이중언어와 양층언어 문제, 한국의 경우 분단 문제와 연결된 언어 문제 등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곧 언어사회학은 사회언어학과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사회언어학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거시적인 주제와 연구 방향을 보여 주는 사회언어학의 한 흐름을 언어의 사회학 혹은 언어사

회학이라는 명칭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 II. 삶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 그리고 사회언어학의 역사

1960년대 사회언어학의 발생은 그 당시 사회의 격렬한 운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의 수많은 식민지의 독립은 Joshua Fishman에게 언어 정책, 언어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문제의식을 던져 주었다고 본다.<sup>3)</sup> 이러한 그의 정책론적 관심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80년대에는 Baldauf와 Luke((1989)와 Bullivant(1984)과 같은 폭넓은 문화 발전의 시각에서 다루어졌고,<sup>4)</sup> 시공간적 차이는 있지만 1990년대에는 낱말이 영어에 의해 밀려나가는 독일어권의 관심사를 담은 Ammon(1992)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의 사회학은 민족과 국가의 문제에 인문학도들로서는 가장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빈곤과 차별 역시 언어의 사회학의 눈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인들이 후진국이 아닌 그들 자신도 빈곤층을 안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사회언어학은 언어와 빈곤, 그리고 계층 문제를 다루었다.<sup>5)</sup> 또 미국에서 민권법안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일어날 때 사회언어학자들은, 아니 그들의 연구 성과는 끊임없이 흑인들, 그리고 백인들을 포함한 빈곤층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사회언어학자들도 계층을 부호화시키는 교육 제도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나갔다.<sup>6)</sup>

민족국가와 민족어의 개념이 강해질수록 방언처럼 그 사각지대에 있던 언어들은 그 의미가 바래질 수밖에 없었다. 오랜 동안 평가절하되어 온 혼합어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혼합어는 언어의 사회학을 만나 마침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복권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한편 1960년대의 진보적인 사회 운동은 점점 중산층 내부로 들어가서 드디어 여성 운동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의 사회학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여성들 편이 우군이였다. 또 많은 여성 사회언어학자들을 배출해 냈

3) Fishman(1968, 1971, 1972a, 1972b) 참조

4) 이 연구 총서들은 Multilingual Matters LTD의 시리즈인데 당시에 매우 풍부한 언어문화적 통찰을 제시해 주었다.

5) Williams(1973) 참조

6) Basil Bernstein의 일련의 교육학 업적들이 이 분야를 선도했다.

7) 초창기의 Hymes(1971)부터 최근의 Lefebvre(1998)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밀화되어 오고 있다.

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성과는 화용론 및 대화 분석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 분야의 발전은 오로지 사회언어학자들만의 공로라고는 할 수 없다. 철학과 사회학에서의 공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회언어학적 인식의 수준은 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 화용론과 대화분석의 발전은 녹음기의 소형화를 가져온,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녹음 장치의 디지털화를 성취시킨 공학도들과 기술자들에게 진정 감사를 돌려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초에는 이란과 니카라과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당연시하던 후진국이란 이름과 독재 체제의 관계가 가졌던 등식이 깨뜨러지기 시작한 때이다. 또 19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여러 지역에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회개혁이 이루어진 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중남미에 시민 세력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군부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독재 엘리트들은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적잖이 관심을 가져온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어가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어 소멸과 동화’라는 공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어 사용 집단으로서의 긍정적 이해는 당연히 그 근저에 사회언어학에서 일구어낸 다언어 사회에 대한 통찰이 깔려 있다. 따라서 지난날에는 일종의 엘리트들의 언어 현상처럼 인식되었던 이중언어 혹은 다언어 능력 문제는 ‘대중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좀 더 소수자들, 소수 집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사회언어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양한 언어학자들이 소멸 위기의 언어 문제에 애정을 바쳤다.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자그마한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한 것이다. 이 분야는 1980년대에 Nancy Dorian이 스코틀랜드어의 소멸 과정을 사회경제적인 요인 분석과 함께 매우 심도 있게 서술했으나 대단히 사회언어학적인 주제임에도 사회언어학자가 아닌 언어학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돋보인다. 그런 문제는 사회언어학자라기보다는 좀 수준 높은 저널리스트의 성격의 대중 교양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David Crystal의 저술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역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의 소산으로 수수민족 혹은 소수언어 사용자의 인권, 더 나아가 언어적 인권 문제 역시 바로 이 시기에 본격화된 쟁점이다.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은 전적으로 어디까지나 Robert Phillipson과 Tove Skutnabb-Kangas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훗날 많은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법적, 정치적 권리를 교육과 공공 사회 부문에서 획득하게 된다면 그런 운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의 공헌을 정말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sup>8)</sup>

1990년대는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국면에서는 이른바 세계주의 물결이 거칠게 몰아칠 때였다. 당연히 영어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sup>9)</sup> 학문 세계에서 영어학과 영어교육학은 모든 외국어 교육을 고사시키는 위력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어 사용자로서 담담하게 영어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 밝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짚어낸 David Graddol의 ‘영어의 미래’는 한 언어의 운명이 그리 일방적인 확산으로 획일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전망을 하게 한다. 어찌 보면 언어의 위기는 그 언어 사용자의 각성을 불러오게 마련이 아닌가? 좀 엇갈린 위치인, 독일어 사용자의 처지에서 미래 전망을 하는 진단도 Ehlich(1999)에서 볼 수 있다.<sup>10)</sup> 여기서 토론 참여자들은 독일어의 미래에 ‘매우 현실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다. 영어와 대등한 위치를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학술의 언어, 문화의 언어 등으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기능으로 독일어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독특하게도 Michael Clyne은 동유럽과 서유럽의 다리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게 보인다.

어떻든 영어의 확산은 반대로 영어 자체의 자기분열, 혹은 분화 현상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혔다. 이미 1980년대 초에 나온 Ferguson과 Heath(1981)에서부터 2000년대의 Finegan과 Rickford(2004)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영어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사실 이 두 책의 편집 내용도 비슷한 주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다양한 영어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아시아에서도 일정한 반향을 일으켰다. 아시아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한 Kachru와 Nelson(2006)에서는 영어가 세계어라면 아시아 사람들의 영어도 역시 영어 문제의 일부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sup>11)</sup> 이는 이미 Graddol(1997)도 예상하고 있는 바이며, 앞으로 영어의 토박이, 곧 원어민이란 누구를 가리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어가 세계의 언어 구실을 하면 할수록 그 규범 제공자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이어야 하는지 점점 모호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의 세계화는 의외로 복잡한 변향이 많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여러 모로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8) Skutnabb-Kangas는 이미 1970년대 이후 유네스코의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소수민족의 모어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9) Jenny Cheshire(1991)에서 세계의 영어 상황이 잘 개괄되어 있다. 또 Swaan(2001)의 앞 부분에도 영어의 세계 지배 현상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

10) 1998년 3월에 열린 뮌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이다.

11) 이 책은 Asian Englishes Today라는 총서 가운데 한 권으로서 이 총서에서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관련된 교육과 문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일의 재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맞이했다. 이것은 또한 사회언어학 연구의 대사건이기도 했다.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러시아어 교육의 퇴조와 영어 교육과 독일어 교육의 확산이었다. 그리고 마치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이 독립했듯이 구소련 영역이 갈라지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및 발틱 3국이 독립을 성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용어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체첸은 끝내 독립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또 얼마 후 구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이 확대되면서 결국 이 지역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로 분열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사실상 하나의 언어나 다름 없던 세르보-크로아티아어는 공식적으로 두 언어로 결별을 고하고, 한술 더 떠서 보스니아 역시 자신들의 언어를 보스니아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세르비아와 연합 공화국을 이루고 있던 몬테네그로도 독립을 하여 과거의 유고슬라비아는 완전히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르비아의 코소보 지역에 있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독립을 원하면서 나토가 개입을 하여 현재는 국가도 아닌 평화군의 점령지가 되어 버렸다. 아마 서유럽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된다면 코소보 역시 독립을 성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남슬라브인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던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6~7개의 독립국이 된 것이다. 동시에 언어의 발칸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언어 갈등의 요소는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의 관계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어를 자신들 언어의 방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다른 인접국들은 그런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국인데 자칫하면 또 큰 충돌을 빚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케도니아에는 다수의 알바니아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들이 언제 알바니아와 통합 운동을 벌일지 모르는 - 알바니아가 워낙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이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미리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동서간의 진정한 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유럽의 언어' 전반에 대한 관심들을 적극적으로 내 보이게 되었다.<sup>12)</sup>

199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유럽은 하나의 정치, 경제 공동체의 첫발을 내디뎠

12)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Ohnheiser 외(1999)의 작업이다.

다. 이것 역시 사회언어학에 대단히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는 종소리라 하겠다. 처음에는 열다섯 나라들의 연합에서 출발했었지만 지금은 스물일곱 회원국들이 모여서 꽤 큰 살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스물일곱 회원국들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인정하는 통에 현재 유럽연합의 공용어는 스물세 개에 달한다. 당연히 여기서도 언어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일단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대체적인 ‘실무언어’로 정착되어 있으나 의회의 토론 등에서는 모두 각자 자신의 언어로 말하면서 즉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매우 이상적이면서도 번거로운 체계를 만들고 있다.<sup>13)</sup>

이 과정에서 룩셈부르크어는 그것이 자국 내에서 공용어의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유럽 공용어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라인 하류 지역 방언(모젤-프랑크 방언)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용자가 거의 없는 아일랜드어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려 하는 노력이 인정받아 정식으로 유럽 공용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 것을 보면 모든 언어는 타자에 의해 억압받을 때보다 자기 자신들에 의해 버림받을 때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III. 세계 속의 아시아, 아시아 속의 한국

이러한 세계사적인 물결 속에 한국과 아시아는 한 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치 남북의 분단은 우리만의 예외처럼 보이기 하겠지만 사실 모든 식민지들은 독립을 성취하면서 원래의 식민지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어도 원하는 그대로 된 곳이 거의 없었다. 중남미가 독립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수많은 나라가 되었듯이, 아프리카도 독립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이해관계보다 지배자들의 이해관계 또는 토착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독립되었다. 또한 식민지 지배 세력들은 ‘열강’이라는 구닥다리 이름을 ‘선진국’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는 파키스탄과 분리되어 독립했으며, 그 통에 이웃한 푸쉬툰족들도 일부는 파키스탄에,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나뉘어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에게는 악몽 같은 박탈로

13)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에 대한 내적인 어려움들을 기술한 것으로 Jörg Witt(2001) 참조

현실화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조선도 남북한으로 -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 분리되어 독립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를 ‘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단’이라는 개념으로 재통일을 기약하고 있다. 당연히 언어의 사회학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반대로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통합된 곳도 있다. 필리핀 남부의 술루 지역은 한 번도 식민지 지배자들인 스페인과 미국에게 복속된 일이 없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의 독립 과정에서 그냥 필리핀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두고두고 ‘분쟁 지역’이 되고 말았다. 비슷한 곳이 버마(미얀마)의 일부 소수민족 지역인데 이들 역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버마(미얀마)의 일부가 되어 역시 ‘분쟁 지역’으로 남았다. 이들 분쟁 지역은 당연히 잠재적인 언어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통합되고 확장된 지역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무력으로 통합된 곳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력으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를 강제 병합하고,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파푸아뉴기니아 역시 무력으로 장악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결국 동티모르의 통합은 실패하여 나중에 따로 독립하였고, 파푸아뉴기니아 서부는 계속 인도네시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인도도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고아(Goa)’ 지역을 무력으로 통합시켰는데 이 지역은 워낙에 작은 곳이어서 그리 복잡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역시 영국과 포르투갈에게서 홍콩과 마카오를 돌려받았다.

특이한 곳은 대만 문제인데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내전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이곳 역시 북경어와 민난어 사이의 긴장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 중국에 귀속된 홍콩도 원래 널리 사용하던 월(粵)어 대신 북경어가 더 장려되고 있는데, 언어적 갈등 문제는 아직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과 아시아가 광범위한 독립을 성취하며 국제 관계에서 실체 있는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인도의 네루가 앞장 선 제삼세계 운동이 일정한 정치적인 힘을 결집시키기는 하였으나 1970년대 이른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과 함께 힘을 잃어갔다. 석유 파동은 식민지 출신 지역이 중심이 된 제삼세계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고 ‘경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등이었다. 또한 이때부터 이 지역은 확실하게 경제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곧 이어 1980년대에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냈다.

1980년대는 세계가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기껏 과거 문화가 신비로운 곳, 서비스 좋은 관광지,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곳, 매우 권위주의적인 곳 등의 인상이 지배적이던 이곳이 과거와 달리 일본 외에도 경제의 중심지 내지는 급속히 발전하는 지역들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오로지 아시아인들의 내적인 역량과 의지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에서 금융 중심의 자본 중심지로 급격하게 탈바꿈을 하게 된다. 이 제조업을 유럽이 넘겨받지 못하고 아시아가 넘겨받은 것이다. 또 이 틈에 폭발적인 이익을 얻게 된 일본은 즉시 플라자 협정과 같은 엄청난 견제를 당하게 되었고, 그 틈새에 한국과 대만은 외야로 흘러나가는 공을 재빨리 줍게 된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 버린다.

한국은 이 시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매우 큰 의미를 안고 있었다. 그 이전의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이 아프간 내전 개입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불참한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서울 올림픽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청산하자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무척 크게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 정당성과 정통성에 약점을 지니고 있던 정부 역시 이것을 통해 만회를 하고자 혼신의 힘을 불어넣고 있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한국 전쟁’만 기억하고 있거나 한국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뒤이어 곧 몰락해 나간 사회주의권 사람들과 해외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빈곤 국가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선택지였다. 이후 한국은 역사적으로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던 개벽, 외국인들의 다량 입국, 그것도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 일하러 오거나 웬만하면 놀러 살려 하는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언어사회학에서 절대 비켜갈 수 없는 많은 쟁점과 문제의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의 민간화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다. 물론 이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묵은 독재국가이던 중남미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도 차근차근 민간화가 진행되었다. 정치의 민간화에 성공한 한국은 매우 낙관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무르익던 세계화 물결에 크나큰 고민 없이 승차하여 이른바 OECD 가입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 이상 후진국이 아니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또 과거의 거대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몰락과 분리는 북방 외교라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정책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어쨌든 이때부터 한국인들은 북한을 제외

한 모든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여권을 지니게 되었고, 언제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게 됐다. 그러나 과거의 열강, 지금의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한국과 같은 신흥 발전국들을 OECD에 가입시키고 자신들은 G7과 같은 더 높은 자리로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사회의 낙관주의는 과거 군부 세력을 주저앉히는 데에는 큰 에너지를 제공했지만 경제 분야에는 과잉 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할 정도로 대책 없이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뒷날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숙제는 고스란히 그들과 동료로 지내야 하는 사람들과 언어사회학적으로 문제를 보려는 사회언어학도들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 흐름은 뒤이어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주라는 뜬도 보도 못하던 새 풍속을 창출해 냈다. 이것 역시 언어사회학의 무거운 과제이자 짐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어느덧 남북한의 해빙이 찾아왔다. 녹을 줄 모르던 빙하가 물러가게 된 것이다. 2001년부터 한국의 국립국어원과 그 밖의 몇몇 학회는 북측과 언어 문제로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연변을 비롯한 지역과 각계에서 활동하는 재중동포들의 소문 없는 협조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고마운 일이었다. 그 결실로 국립국어원이 주도한 남북한의 대규모 방언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민간단체와 통일부가 주도하는 겨레말 사전 편찬 작업이 뜻을 올렸다. 컴퓨터 자판의 통일을 위한 교섭도 진행되었지만 반대의견이 강해서 성취되지 못했다.

2000년이 되기 직전, 1998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느닷없이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논쟁이 충분한 준비 없이 불붙었다.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그 타당성과 부당성이 객관적 개념을 통해 교환되지 않았고, 대단히 감성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대 세력은 상대방을 민족혼을 상실한 집단으로 몰아붙였고, 찬성 세력은 반대자들을 낡은 구시대의 폐습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비웃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논쟁 방법부터 시작하여 그 논제의 타당성 문제 등 매우 어설피고 거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오히려 토론에 참여하기 거부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 것을 보도 매체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몰고 가서 더욱 더 열매 없는 논쟁에 그쳐 버린 아쉬움도 많았다.<sup>14)</sup>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은 얻을 수는 있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대중들은 “우리도, 혹은 우리 자식들도 영어 한번 잘 해보면 안 되냐?” 하는 목마름이 뿌리 깊이 있었다는 것

14) 김세중(2001) 6p 참조

을 발견한 것이다. 국어 문제, 외국어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사회적 이익의 분배 문제 등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심리적 현상이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 언어사회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 없이 제 기능을 놓칠 수가 있는가 하고 한탄을 해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세계화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이미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영미권과의 호환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많은 조기유학, 기러기가족, 심지어 원정 출산 등 그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아무도 검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영어 교육 일변도로 말미암아 1990년대부터 그 외의 외국어 교육은 고사 상태에 빠졌다. 또 영어 외의 외국어 사전은 시장에서도 거의 퇴출된 상태이다. 세계의 모든 지식과 의미를 오로지 영어라는 하나의 낚싯대에 의존하여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는 상태는 어딘가 모르게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는 영어 교육 자체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영어 교육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한지 무척 오래고, 사교육도 역시 이른바 원어민 강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으며, 질 좋은 교육보다 값싸고 접근이 쉬운 교육이 더 성장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무조건하고 영어 강의를 장려하는 바람에 영어 강의 가능자만 교수로 뽑으려 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식 관리 체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전자 사전과 각종 컴퓨터 응용 장치들은 그나마 시장에 남아있던 영어 사전의 수명을 단축해 가고 있다.

세상은 무척 많이 변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전쟁은 이 이상 이익을 얻는 수단이 못된다.”는 것이다. 비용(cost)이 이익(benefit)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군사보다 정치가 손해가 덜 나며, 정치보다 경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보다 문화가 더 많은 풍요함을 맛보게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어찌 보면 진정 바람직한 사회적 파라다임을 생각해 볼 때가 되긴 된 것 같다.

또 달리 본다면 이제는 진정 사회언어학이, 또 언어사회학이 개인의 취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의 품격을 높이는 천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계의, 아시아의, 그리고 한국의 사회언어학, 또 언어사회학이 이 시대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메시지이다.

#### IV. 한국의 사회언어학, 그리고 언어사회학

사회언어학의 여정이 해당 사회의 격동을 외면할 수 없듯이 한국의 사회언어학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지각 변동과 무관할 수 없었다. 사실 한국어 연구는 주시경 이래 태생적으로 사회언어학적인 함의를 항상 품고 있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다. 19세기 말 이래 식민지 시대, 그리고 건국 이후, 한국어가 겪은 이런저런 경험은 Fishman이 천착했던 언어 규범(language norm), 표준화(standardization),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 문제에 어느 것 하나 빗나가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었으며, 그가 관심을 가졌던 민족주의 문제와 항상 깊게 결부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어의 표준화 작업 역시 Labov의 변이 연구의 성과를 안겨 준 방법론이 선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무리수들이 아직도 그 유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남북의 언어가 표준어와 문화어로 분화되는 모습은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보-크로아티아어의 분화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언어학이 오히려 먼저 태어났어야 할 좋은 토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언어학은 외국에서 사회언어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초기 엘리트들을 기다려야 했다.<sup>15)</sup> 그러나 당시의 학문적 토양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만한 체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사회언어학이 ‘공식적으로’ 태어난 것은 1990년 12월 초였다. 그리고 이곳은 다양한 사회언어학 주제들이 집중될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마당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언어사회학적’ 사건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언어사회학과 관련한 일들은 대개 해외에서도 그랬듯이 학계의 바깥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4년 5월에 학술원 산하에 국어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이 지금의 국립국어원의 전신이다. 이 기관은 1991년 1월23일에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산하 기관으로 탈바꿈해서, 2004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물론 아직도 이 기관이 ‘언어정책 기관’인지, 아니면 문화부 관료조직의 전문적인 하부 구조일 뿐인지,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언어정책적인 일련의 사건과 문제에 항상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만이 아니라 넓은

15) 이들이 한국사회언어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이맹성, 장태진, 황적륜, 박순함, 홍연숙, 이덕호, 박영순 선생님들이다. 그분들의 서지사항은 이 글에서는 생략했지만 한국 사회언어학의 ‘앞장’을 서셨고, ‘바람막이’를 해 주셨던 그 고마움을 여기에 밝혀 적어 둔다.

의미의 정책의 역사적 책임은 - 제도적으로는 상위 조직인 국어심의회 문제를 포함하여 -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이후 전개되는 한국의 언어의 사회학적 논제들은 적잖이 이 기관의 역할 문제와 연관 지어 논의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낙관적인 기분으로 세계화의 길에 발을 들이밀었고, 그 자신감은 1997년에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부)의 주도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평가 제도의 창출에 이르게 되었다. 1994년부터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삼년 만에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분야에서 ‘평가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은 단순히 그 제도의 창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제도가 얼마나 지속성 있게 발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 평가 제도는 2010년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sup>16)</sup> 그간에 연간 실시회수 증가, 문제은행으로의 전환 등을 본다면,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시험이 이루어 낸 것은 단순히 한국어 학습자들의 성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하 한국어교육으로 줄임)’ 분야의 교육과정이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시험 이전의 각 교육기관이 마련한 교육과정은 다소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의 체험적 타당성은 있을지 몰라도 원론적이며 제도적인 타당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로써 한국어교육은 제도적 실체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교육 부문과 일정한 외재적 호환성, 또 교육기관 사이의 내재적 호환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분야가 좀 더 통합적이고도 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로 기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세계화는 자연히 내재적 세계화 작업과 외재적 세계화의 분화를 가져왔다. 내재적 세계화는 한국 사회 내부의 경제적, 문화적 산물이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외재적 세계화는 외부의 각종 변수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대학 평가나 자유무역협정이니 하는 외재적 문제, 영어 교육 문제와 조기 유학, 혹은 외환위기 같은 두 요인이 뒤섞인 복합적 문제도 겪었지만 내재적인,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치고나가는 세계화도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연예계와 영화계가 선도한 이른바 속칭 ‘한류’ 문화이고, 또 다른 면에서

16) 통계가 드러난 19회 시험에서는 24개국 103개 지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 전문가들이 이루어낸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이다. 또 이 사업과 연관된 몇몇 기구가 창설되거나 개편되기도 하였다.

1991년 12월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었다. 정신문화 연구원의 후신 한국학 중앙 연구원과 함께 한국학 지원 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같은 해에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은 과거 미국의 평화봉사단을 본딴 기관으로서 한국어의 해외 보급에 무시 못 할 구실을 한다. 원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취약 지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하부 구조가 없는 황무지 개척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 활동을 해 본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재적 세계화를 견인하는 주요 기관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997년에 설립한 재외동포재단과 오래전부터 재외동포 자녀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던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1992년에 국제교육재단으로 변신하여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 사업에 관계하고 있다.

종합하면 1990년대는 언어사회학 분야에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의 홍수가 있었던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경험을 먼저 했던 북미와 서구 지역의 인종, 계층, 국가, 이념, 사회 통합, 경제 위기 등 어느 것 하나 한국을 비껴가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는 점점 하나의 마을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출발점과 중간 지점은 서로 달랐지만 종착점은 어딘가 모르게 거의 같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반성해야 할 점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넘쳐날 때 사회언어학자, 아니 거시적인 안목을 지녔다는 언어사회학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대학 구조가 이러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품어 들일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아쉬움은 ‘그때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들’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는 모든 현장에서 사회언어학자들의 목소리가 묻어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V. 정책 기관의 문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부 조직의 하부에 설립되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경하할 일인 동시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언어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간 부문의 주요 운동이자 대

중 사회의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대중의 의식을 담아내기 좋은 면이 있었던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국가적인 교육 체제 같은 것과 일치시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한국 사회는 그리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국가가 언어 문제를 정책적으로 장악해 오는 데 성공했다. 원래 민간 부문, 즉 한글학회가 주도했던 맞춤법을 앞에서 언급한 국어연구소가 관장하게 하였고, 결국은 1989년 국가 주도로 현행 맞춤법으로 개정하여 시행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이 정부 기구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앞으로 언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지겠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첫 주요 사업은 한글 로마자 표기 문제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이었다.

이때 로마자 표기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개정 내용이 완벽했다거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뜻을 아니다. 그전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던 맥쿤 라이샤워 방식을 극복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표기 체계 자체가 한국어 사용자 집단을 전제로 하지 않은, 한국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이고 외재적 기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뜻밖에 컴퓨터가 제공했다. 이 이상 알파벳 글자 외의 부호가 사용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독일어에서도 자판에서만큼은 움라우트 기호와 ss에 해당하는 ß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에 편찬되었던 표준국어대사전은 매우 획기적인 사전이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어 어휘를 집대성한 것이었다.<sup>17)</sup>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모든 사전은 불가피하게 비판 받을 부분이 태생적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법, 그것보다 먼저 논의를 해 볼 것은 과연 국가가 나서서 특정 사전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또 그것이 언어사회학에서의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한다. 그 사전 이후 국어사전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전 출판이라는 사업 자체가 민간 부문에서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렸다. 국가가 나서서 치안을 책임지니 사설 경비 업자가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어사전을 만드니 민간 부문이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국가는, 아니 국립국어원은 언어자원 관리를 책임지고 사전의 편찬은 민간에서 각자의 맞

17) 50만 남짓의 어휘를 자랑하고 있다. 종이 사전과 웹 사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에 따라 다양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문화의 발전에 더 기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정책이며, 이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언을 하는 것이 언어사회학자의 책임일 것이다. 그 동안 한국어교육과 관련지어 활동하던 한국어세계화재단 역시 부실화해서 국가 정책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었듯이 좋은 일을 국가가 모두 전담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던 영어 마을의 부실화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것도 언어 정책 관련자, 또 언어사회학자들의 게으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결국 되돌아보면 국가가 나서서 환영할 만한 일은 첫째 그 정당성을 담보하는 일(거래말 사전 편찬 같은 것), 둘째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것), 셋째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21세기 세종계획과 방언 조사 같은 것),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한국어능력시험이나 거래말 사전 등) 등에 집중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나 다양한 의견과 감성이 필요한 부문은 민간으로, 그리고 충분히 시장 원리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상업적 논리로 풀어 가는 것이 가장 세금도 절약하고, 뒷마무리 책임도 덜고, 일의 성과도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국립국어원이 2001년부터 수행한 방언 조사와 같은 남북한 공동 사업은 대단히 유의미하고 다음 단계까지 지속되어야 할 언어사회학적 함의가 풍부한 일이었다.<sup>18)</sup> 그러나 워낙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관계로 종종은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황소걸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어찌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때로는 정부 기관이, 또 때로는 민간 기관이나 재외 교민 단체가 나서서 서로 조율을 하고, 소통의 통로가 봉쇄되지 않도록 항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거시적 언어사회학의 실천 기관으로서의 정부 조직은 여러 모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을 도맡아 직접 챙기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조율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 단체나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게 하고, 또 시장 기능에 맡길 것은 관찰과 평가 중심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거북한 외국의 문제나 사소한 이익의 문제는 굳이 부담스러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언어 자원 관리, 문화와 언어 관계 방대한 정보를 자료화하고 공급하는 일 등 민간 기관이 담

18) 비교적 폭 넓은 논의는 김하수(2005) 참조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설사 정부 기관이 더 많은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기실 정부 조직만큼 경직된 조직도 찾기 어렵다. 일단 전문가의 판단이 관료 사회에 장악되면 그 전문성은 허무할 정도로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

## VI. 다시 세계 문제와 한국의 언어사회학

21세기 벽두에 Haarmann(2001)은 지난날 세계의 언어지정학적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언어 문제 상황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견해를 표한다. Graddol(1997)은 영어의 미래만을 다룬데 반해서 그는 전통적으로 언어는 국제간, 종족간에 마찰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또 일국적 상황 속에서 자국 언어만 중시하고 남의 언어는 무시하거나 억압하곤 했으나 미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 다언어, 언어 혼합, 종족 혼합,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문자 언어와 구두 언어의 유연한 발전 등 훨씬 풍부한 인류 언어의 문화역사적 조망을 담아 새로운 세기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인상 깊은 현재와 미래의 개괄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견해보다도 더 큰 시각에서 언어 문제만이 아닌 세계사회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미 20세기 후기부터 나타난 몇 가지 조짐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의 후기 현대(Post-Modern) 문제는 학문의 파라다임이 이제는 계몽주의 시기의 틀을 벗어나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여성의 급격한 사회 진출은 모든 실체의 기본 부호가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서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다.

국가의 기능 역시 경제와 안보 핵심에서만 전통적인 제 기능을 수행할 뿐 많은 부분이 탈국가화하거나 민간화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면적 전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지전은 어느 정도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 과거와 같은 민족주의 문제도 적어도 그 열정만큼은 많이 식은 것이 사실이다. 단지 이익 공동체로서의 민족 문제는 아직 유효할 것이다. 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문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등은 전통적인 억압과 해방의 모델이 아닌 과거의 괴역압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러한 새로운 갈등 과정에서 언어는 또 새롭게 분화될 것이고, 혼합될 것이다.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콩고 동북부, 라이베리아, 수단, 다르푸르 지역,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부 등에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세력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종족의 분화와 새로운 융합이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난날과 같은 일반적인 다수자/소수자 관계를 말하기도 어려워져 간다. 이제는 많은 종족 집단이 어느 경우에는 다수가, 또 다른 경우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연방 해체 과정에서 삼시간에 소수자가 된 경우가 많다. 많은 이주 물결이 스스로 선택한 소수자의 길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미국에서 히스패닉을 함부로 소수라고 말하기 조심스럽기만 하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가 양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소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소수자 혹은 언어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과 제도의 창출이 중요하다. 언어 문제는 상당 부분 태생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려가 없으면 자칫 불공정 경쟁만 조장될 뿐이다.<sup>19)</sup>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걱정한다. 이것은 단순히 일국적 변화가 아니라 범세계적, 아니 지구적 변화가 다가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언어학, 아니 좀 더 거시적으로 언어사회학을 하는 사람, 혹은 세력들은 당연히 지구적 변화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종족 집단의 이동, 언어와 문화의 혼합 및 융합, 교육을 통한 길등 예방, 지식의 언어화와 공정한 분배, 이질적 종교, 이념, 민속과의 소통 문제 등은 이런 지구적 기후 변화 못지않은 지구적 문화 재편성을 목도하게 될 시기가 다가움을 보여 준다.

제안을 한다면, 일종의 언어 관측소를 세워 세계의 언어가, 세계의 의사소통 구조가, 세계의 담론과 그 콘텐츠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슷한 기구로는 언어와 종족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학자(Ethnologue)나 위기 언어들에 대한 국제 정보 센터(International Clearing House for Endangered Languages, ICHEL)와 같은 정보 교환 조직과 연구 조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언어사회학자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사회의 언어 문제, 문화간 소통 문제, 교육 자료 문제 등에 깊이 관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어에 관한 보편적 강령 혹은 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 한국 사회의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하수, 조태린(2008) 참조

- (1) 누구인가 부모에게서 배운 언어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 (2) 누구든지 부모에게서 배운 언어로 아무런 제한 없이 지식을 배울 수 있는지?
- (3)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로 모든 지식이 기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지?
- (4) 누구든지 이주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
- (5) 누구든지 짝 언어 사용자와 혼인을 했을 때 제2세가 부모 양쪽의 언어를 습득, 학습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
- (6) 어떤 언어이든지 각종 매체와 통신 수단에서 그 제한을 당하지는 않는지?
- (7)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가 입법과 사법 모든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 (8) 어떤 언어이든지 짝 언어와 자유롭게 통역되고 번역되는 데에 장애가 없는지?
- (9) 누구든지 자신의 언어로 권력 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필요한 요청과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지?
- (10) 모든 언어는 그 언어에 서투른 외부인을 위하여 간단하고 쉬운 스타일의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가?<sup>20)</sup>

이상의 열 가지는 사회언어학, 아니 언어사회학의 연구 작업 성과들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해서 열거해 본 것이다. 일종의 세계 언어 현장(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다가오는 범세계적 소통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언어사회학이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관점과 태도라고 본다.

이미 대부분의 과학 기술은 범용화 되어 간다. 또 많은 기술이 식량 문제와 건강 문제를 착착 해결해 가고 있다. 각종의 불평등도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실물의 공급보다는 실물의 공급 과정에 협조와 유대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며, 그래서 더욱 모두들 자신의 언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곧 상품 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말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는 일자리 말이다.

20)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simple English 참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직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죽림의 담론, 혹은 사바 세계가 아닌 정토 세계의 이야기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어의 사회학, 아니 일반 사회언어학 자체가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형성해 주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상 공장과 금융과 물류가 모든 사람의 직업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자신의 언어 능력으로 소통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몫을 챙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과거에 무슨 여론 조사니, 정보 제공자니, 상담이니, 보험이나 금융 설계 등이 직업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발전은 우리 언어사회학자에게 연구 업적만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사회 구조를 설계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언, 상담, 회의와 행사 주선, 해설, 안내, 문헌이나 법령 해석, 통역과 번역, 문답(여론 조사 같은 데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어 내는 능력) 등의 직업군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언어 사용과 깊은 연관을 지닌 일거리들이다. 트위터의 발생은 앞으로 말을 중얼거리게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상품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언어 혹은 언어 능력은 항상 고급 직업을 창출해 온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클린턴의 선거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은 앞으로 “바보야! 문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야.”라는 구호로 바뀌는 시대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5a). 국어사용 빈도 조사 2(김한샘).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5b).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양명희).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5c).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양명희). 서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5d). 국어연감(2005). 서울: 국립국어원.  
 김세중 (2001). “공용어의 개념과 영어 공용어화 논쟁.” 새국어생활 11(4), 5-20.  
 김하수 (2005). “남북 교류 상황.” 국립국어원 (편). 국어연감(2005). 서울: 국립국어원.  
 김하수, 조태린 (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79-104.

- 미우라 노부타카(三浦信孝) & 가스야 게이스케(糟谷啓介)(2000)(編), 言語帝國主義  
と何か, 藤原書店. (이연숙, 고영진 (역). (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 박영순 (2001). 한국어의 사회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이연숙(李妍淑)(1996), '國語'という思想-近代日本の言語認識, 岩波書店. (고영진,  
임경화 (역). (2006). 국어라는 사상. 서울: 소명.)
- 홍연숙 (1977). 남북한 언어 이질화. 서울: 국토통일원.
- Ammon, Ulrich (1992). *Status Change of Languages*.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 Baldauf, Jr. Richard & Luke, Allan (1989). *Language Planning and Education  
in Australia and the South Pacific*. Clevedon,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 Bullivant, Brian M. (1984). *Pluralism: Cultural Maintenance and Evolution*.  
Clevedon,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 Cheshire, Jenny (ed.). (1991). *English around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avid (2000). *Language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권루시안 (역). (2005). 언어의 죽음. 서울: 이론과 실천.)
- Ehlich, Konrad (Hg.). (1999). *Deutsch im 3*. München: Jahrtausend, IUDICIUM  
Verlag.
- Fishman, Joshua A. (1968).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Mouton:  
The Hague.
- Fishman, Joshua A. (ed.). (1971). *Advance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Vol  
I. Mouton: The Hague.
- Fishman, Joshua A. (1972a). *Language and Nationalism*. Rowley,  
Massachusetts: Newbury House.
- Fishman, Joshua A. (ed.). (1972b). *Advance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Vol  
II. Mouton: The Hague.
- Ferguson, Charles A., & Heath, Shirley Brice (eds.). (1981). *Language in the  
U.S.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egan, Edward & Rickford, John R. (eds.). (2004). *Language in the US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ddol, David (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British Council.
- Haarmann, Harald (2001). *Babylonische Welt*. Frankfurt: Campus Verlag.
- Hymes, Dell (ed.). (1971). *Pidgi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s, Dell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achru, Yamuna & Nelson, Cecil L. (2006). *World Englishes in Asian Contexts*. Hong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 Labov, William (1966). *The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 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efebvre, Claire (1998). *Creole Genesis and the Acquisition of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nheiser, I., Kienpointner, M., & Kalb, H. (hrsg.). (1999). *Sprachen in Europa*. Innsbruck: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Innsburg.
- Skuttnabb-Kangas, Tove & Phillipson, Robert (1994). *Linguistic Human Right*. Berlin: Mouton de Gruyter.
- Swaan, Abram de (2001). *Words of the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Swann, Joan, Deumert, Ana, Lilis, Theresa & Mesthrie, Rajend (2004).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Trudgill, Peter (2003). *A Glossary of Socio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illiams, Frederick (ed.). (1973). *Language and Poverty*. Madison, WI: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Wolfram, W., & Schilling-Estes, N. (1998). *American English*. Oxford: Blackwell.
- Witt, Jörg (2001). *Wohin steuern die Sprachen Europas*. Tübingen: Stauffenverlag.

### 주요 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portal/OkfMainView.do>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한국어능력시험 <http://topik.or.kr/>

민족학자(Ethnologue) <http://www.sil.org/ethnologue>

위기 언어들에 대한 국제 정보 센터(International Clearing House for Endangered Languages, ICHEL) <http://www.tooyoo.L.u-tokyo.ac.jp>

김하수

[soling@lex.yonsei.ac.kr](mailto:soling@lex.yonsei.ac.kr)

Received in September, 2010

Reviewed in October,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ember, 2010